

실용음악학과 교수자의 비대면 수업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실기 과목 수업을 중심으로 -

A Phenomenological Study of Faculty Members' Experiences with Online Instruction in Jazz and Commercial Music Departments: Focusing on Teaching Applied Lessons and Performance Classes

류은주*

Eunjoo Ryu

초록 본 연구는 지난 몇 년간 실용음악학과 교수자들이 실시한 비대면 실기교육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해당 현상과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실용음악 관련학과에 출강 중인 교수자 9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하였고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스티비크-콜라이찌-킨의 방법을 사용하였고 3개의 범주와 9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교수자들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불가피하게 비대면 실기 교육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당황함, 고민과 시행착오의 시간, 적응 단계를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성장을 목격한 이도 있었다. 또한 비대면 수업 방식의 용이함을 발견하는 반면 수업운영 전반에 있어 한계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실기 수업에 있어 대면 교육의 우수성을 재인식하면서 미래에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비대면 수업 경험 과정과 실용음악학과의 실기 분야에 있어 비대면 수업이 지니는 의미와 본질을 밝히고, 미래 수업 운영방식에 있어 토대가 되는 자료를 마련하였다.

주제어: 실용음악학과, 비대면 교육, 전공실기, 실기수업, 코로나 시대, 현상학적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eaching experiences of online applied lessons and performance classes in Jazz and Commercial Music Departments during the last few year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9 research participants who were faculty members of Jazz and Commercial Music Departments in colleges, and phenomenolog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e data has been analyzed using Stevick-Colaizzi-Keen method, and three categories and nine themes were brought to conclusion. The analysis shows that participants had gone through stages of feeling awkward, trial and error, and adaptation to the forcibly implemented online instruction, while some others had experienced positive development as an instructor. The participants also had witnessed overall limitation of the method while benefiting from its convenience. Therefore, they recognized the effectiveness of face-to-face education in applied lessons and performance classes, and reported that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support were necessary in order for distance learning to succe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exposed the process of participants experiencing online instruction as well as the meaning and the essence of performance-related courses in Applied Music departments. Lastly,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s in educational methods for the future of Jazz and Commercial Music Departments.

Key words: Jazz and Commercial Music Departments, online instruction, applied lesson, performance class, Covid-19 era, Phenomenological study

* Corresponding author, E-mail: vocal_eunjoo@naver.com

Instructor, Kyung Hee Cyber University, Kyungheedaero 26, Dongdaemungu, Seoul,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2, Reviewed (Revised): 4 January (3 February) 2023, Accepted: 5 February 2023

© 2023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2020학년도 1학기는 국내에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까지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껏 국내외에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급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전환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일반대학교의 교수진들은 학교 차원의 지원이 미비한 상태로 비대면 교육을 준비하게 된다. 여기에서 지원이라 함은 인터넷 대역폭의 크기나 무정전 전원장치, 백업 시스템, 정보보안체제 등의 원격교육을 위한 설비를 IDC(Internet Data Center)에 갖추어 놓고 서비스하는 대다수의 사이버대학(Jung & Jang & Park & Lee, 2010)과 같은 시스템을 말하며, 학생들의 출석과 결석, 진도율과 성적 등 학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용이하게 관리 가능한 LCMS(Learning Content Management System) 이라든지 학습관리시스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Jung & Jang & Park & Lee, 2010)을 말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코로나 시기 동안 비대면 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차츰 마련되기는 했지만, 실용음악학과의 경우 ‘음악’과 ‘실기’의 특성과 연관되는 시간 지연 문제, 저하된 음질, 다자간 동시 연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교수자들의 개별적인 노력을 필요로 했고, 실용음악 학계에서는 비대면 교수법과 이를 적용한 학습효과에 대해 학술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벨리시티주립대학은 음악과와 음악교육학과의 학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한데 ‘음악이론’, ‘청음기법’, ‘기초지휘법’, ‘편곡법’ 등의 교과목을 운영하지만 앙상블수업과 전공 레슨은 오프라인으로 수강해야 하며, 벨리시티주립대학교의 캠퍼스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각 지역에 연계된 교육기관에서의 수업을 듣고 승인을 받으면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Ryu, 2019). 버클리음악대학도 2014년부터 온라인 학사 학위과정을 개설하였으나 ‘뮤직프로덕션’, ‘뮤직비즈니스’, ‘송라이팅’ 등이 작곡 관련 전공과 연주 부문에서는 ‘기타’ 전공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앙상블’ 관련 수업은 배제하고 있다. 이는 비대면 실기 수업의 경우에는 벤치마킹할 사례가 아직까지 미미함을 시사하고 있다.

김하영과 한수정(Kim & Han, 2021)에 따르면 실용음악학 교과에서의 합주 앙상블은 그룹 구성원 간의 악기 및 소리에 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하여 음악장르별에 맞는 연주법과 각 악기의 소리, 송 폼(Song Form) 등을 습득하여 연주하며, 다양한 음악장르에 대한 창조적·협력적인 그룹 연주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밴드와의 만남을 통해 배우고 곡을 해석하면서 쌍방향적인 상호 의사소통을 하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음악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쌓게 하는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Kim & Han, 2021). 따라서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공실기’ 및 ‘앙상블’ 관련한 수업을

담당한 교수자들은 어떠한 형식으로 운영해 왔는지,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실용음악학과에서 비대면 실기 교육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의문점이 생겼다.

페이스 북의 최고경영자 저커버거(Zuckerberg)는 언젠든 현재의 팬데믹과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2년에 걸쳐 다뤄질 디지털 전환이 두 달 만에 이뤄졌다고 하며, 향후 5~10년 내에 원격근무가 5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관망(Ko, 2021)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자는 코로나 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현재에도 실용음악학과 비대면 실기 교육이 의미하는 바와 그 본질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간 비대면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학의 음악 실기 부문에 대해서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가피하고도 급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교수자들이 직접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경험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경험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분석을 진행한다. 이는 ‘비대면 음악 실기 교육’에 관한 풍부하고 다양한 시각을 부여하고자 하며, 실용음악학과의 미래 교육 방식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음악학과에서 비대면 실기 교육을 실시하게 된 계기와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실용음악학과 교수자들의 비대면 실기 교육 경험이 갖는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

셋째, 교수자들의 비대면 실기교육 경험이 실용음악학과의 운영 방향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국내 실용음악학과 교육과정

국내 최초의 실용음악 교육은 1988년 서울예술대학교의 전신인 서울예술전문대학의 국악과 2부에 야간 ‘실용음악전공’이 생기면서 시작되었다(Jang, 2015). 이정선(Lee, 2010)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41개의 2·3년제 대학과 39개의 4년제 대학교, 그리고 22개 대학원에서 실용음악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2020년의 대학 알리미의 표준분류 정보 공시자료를 보면, 실용음악관련 학과의 수는 42개 대학으로 그 수가 다소 늘어났으며, 사이버대학으로는 5개의 대학이 실용음악학과를 개설 중에 있다(Kim, 2021). 이렇듯 지난 25년간 실용음악학과의 양적팽창이 지속되는 데에는 대입정책 변화로 인해 대학 설립이

자유로워진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고, K-Pop 및 오디션 TV프로그램의 인기로 인해 ‘대중음악’을 학문으로서 접할 수 있는 대학의 ‘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학과에 대한 수요는 보컬 전공에서 두드러지는데 2012년 실용음악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경쟁률을 살펴보면 105.99대 1로 나타났으며 2017년 한양대 수시에서 실용음악학과 보컬전공은 497.2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 2020년의 사례에서 서울예대 보컬(여)의 경우 217대 1, 동아방송대 보컬(여)은 126대 1로 집계되었다(Seo, 2021).

한편 실용음악 관련학과의 커리큘럼은 크게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되며, 이론과목은 다시 이론과 실습형 이론과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습과목은 앙상블 수업 등의 합주와 전공실기(개인레슨)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Kim, 2021). QS세계대학평가(2019) 공연예술(Performing arts) 분야 부문의 국내 대학 순위 중 실용음악학과가 개설된 가장 높은 순위의 대학(Li & Han, 2020)들 중 하나인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음악학과는 ‘블루스클래스’, ‘싱어송라이팅클래스’, ‘스튜디오세션앙상블’ 등의 실기 수업이 48개 수업 중 34개로서 전체 커리큘럼 중 70%를 차지하였으며, 한양대학교 실용음악학과는 ‘재즈앙상블’, ‘컴퓨터음악’, ‘보컬앙상블’ 등 전체 수업 26개 중 실기 수업이 21개로서 80%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윤신과 홍성규(Lee & Hong, 2020)는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실기과목의 체계화는 국내에서 실용음악과가 설립된 배경과 깊이 연관이 있는데, 기존의 제도권 음악에서 빚겨나 있는 대중음악의 ‘현장성’을 전문적인 작품으로 승화하여 그 안에서 실용적이지만 예술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려는 목적이 그것이다(Jang, 2015).

2. 비대면 음악 실기 교육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음악 교육을 시행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곳곳에서 있어왔다. 미국의 경우 뉴 월드 심포니(New World Symphony)에서 인터넷Z(InternetZ)라는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오클라호마대학교(The University of Oklahoma)의 음악대학과 팀을 이루어 인터넷을 통한 음악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Yun, 2018). 류은주(Ryu, 2019)에 따르면 밸리시티주립대학교(Valley City State University)는 2007년부터 온라인 코스를 제공하였고 그간 수업 콘텐츠 제작과 송출을 위한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여 블랙보드(Blackboard)사의 온라인학습시스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과 동시수업 시스템 ‘윌바(Wimba)교실’을 이용해 미국 내 학생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노르웨이, 독일, 중국, 캐나다 등의 해외지역 학생들을 포함한 약 두 배의 학생 수를 모집하기도 하였다(Ryu, 2019). 또한 버클리음악대학은 10년간 온라인 무료 수업 실시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캔버스(Canvas)’라는 독자적인 학습운영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2014년부터 학사 학위 등의 과정을 개설하면서 세계 최대의 온라인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7년 본격적으로 사이버대에 실용음악학과와 개설이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쉽게 지도가 가능한 이론과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용음악관련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기 지도가 필요한 ‘전공실기’, ‘기타연주법’, ‘클래스피아노’, ‘재즈즉흥연주기법’ 등이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기술의 훈련과 실무인 연습이 필요한 ‘홈레코딩기법’, ‘컴퓨터음악’, ‘일렉트로닉뮤직기법’, ‘레코딩실습’ 등이 진행되고 있다(Ryu, 2019).

그러나 실제 실용음악교육에 원격강의가 도입된 예는 몇몇 사이버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보아도 무방할 만큼 소수에 불과하였다(Hwang & Lee & Na, 2020). 따라서 2019년 12월, COVID-19로 인한 코로나 시대가 불러온 비대면 수업 전환 지침에 따라 교수자의 경우 짧은 시간 내에 기존의 대면 수업방식의 운용 구조를 온라인 수업의 구조로 재설계해야만 했고 이러한 온라인 형태의 원격강의 운용을 위한 교수학습전략의 적용 및 설계에 있어 한정된 이해와 지원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Hwang & Lee & Na, 2020).

코로나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학계에서는 다양한 비대면 음악 교수법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권혜진(Kwon, 2021)은 COVID-19 위기대응에 따른 온라인 국악 실기수업을 경험한 교수자와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 화상수업은 인터넷 불안정으로 인한 수업 시간의 지연과 악기 소리가 마치 돌림노래처럼 들리는 현상으로 인한 불편함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수자의 연주 자세와 손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는 점, 즉각적인 피드백의 부족, 수업 장소의 제약, 악기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실기수업 시간의 잦은 변경과 합주수업 불가능 등(Kwon, 2021)을 온라인 실기수업의 문제점으로 보고하였다. 민경훈, 임은정(Min & Lim, 2021)은 비대면 온라인 음악 수업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한 논문에서 음악교육 콘텐츠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능을 정리했다. 첫 번째는 공동으로 하는 온라인 합창 및 합주 활동이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전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차 즉, 레이턴시(Latency)로 인한 큰 어려움이 따른다며 학교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교사와 학생들이 상용할 수 있는 수업 플랫폼 규범화의 필요성, 국가의 교육과정에 따른 음악 온라인 영상 콘텐츠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온라인 음악 수업의 환경 개선과 인식의 변화가 요구(Min & Lim, 2021)된다고 하였다. 안성희(Ahn, 2020) 역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실시한 음악대학 교육에서의 비대면 수업에 대해 교수진 50명과 학생 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모든 비대면 수업의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은 공감대 형성과 교감도가 대면수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이것은 채워질 수 없는 아쉬움(Ahn, 2020)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음악대학의 관현악 전공 관련

강좌의 비대면 교육 실태를 연구한 이명진, 권수미(Lee & Kwon, 2021)은 70% 이상의 교강사 원격 수업을 위해 줌(Zoom)을 사용했으며, 웹엑스(Webex)와 유튜브(YouTube), 스카이프(Skype), 카카오톡(Kakao Talk)의 페이스톡 등으로도 화상 수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의 경우 음향적인 한계가 상당하며, 비대면 음악교육이 구현해 낼 수 없는 특질은 바로 소리의 심미적 질을 지각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미적 감수성의 제발과 반응의 강도(Lee & Kwon, 2021)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비록 불가피하게 빠른 기간 내에 디지털 전환을 수행해 내면서 비대면 음악 실기 교육이 지니는 한계점을 분명하게 마주하게 된 계기였지만, 합창수업을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밴드랩(BandLab)을 활용하여 화음창 활동을 진행시켰던 고선미(Ko, 2021)는 대면 방식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실제 많은 교수자와 학생들이 실용음악교육 중 화성학 과목과 같은 이론 중심의 과목에 대한 비대면 수업 방식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wang & Na & Lee, 2022). 따라서 황은지, 나진주, 이소진(Hwang & Na & Lee, 2022)는 무조건 ‘실기 과목의 비대면 수업은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서 높은 질의 교육콘텐츠를 제작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고, 그를 통해 만족도 높은 콘텐츠를 일괄되게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비대면 실용음악교육 환경을 만들어 내기를 독려했다.

3.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the phenomenon)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lived experiences)적 의미를 기술한다. 현상학자들은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둔다(Creswell, 2010). 본 연구에서는 실용음악학과 교수자의 비대면 실기 교육의 경험에 대한 보편적인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현상에 관하여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현상에 대한 경험에 전형적으로 영향을 준 맥락이나 상황은 무엇인가? 다른 개방형 질문들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이들 두 개의 질문은 특히 경험의 조직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을 이끌게 될 자료를 수집하는 데 초점을 두며, 궁극적으로는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Creswell, 2010). 따라서 비대면 교육을 경험하면서 이에 영향을 준 맥락이나 상황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을 통해 교수자의 경험을 상세히 파악하고,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질문지는 크게 실용음악 비대면 실기 교육의 개인적 경험에 관련된 내용과 전문적 경험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및 연구 참여자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해당 연구는 약 두 달간 시행되었으며, 연구절차는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구 참여자 모집과 질문지 작성, 2022년 10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수집된 자료를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분석하였다. 11월 16-20일에는 질적 연구 전문가의 검토 작업을 통해 기술된 연구 내용 및 결론을 도출하여 21-24일 동안 연구 참여자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을 위해 연구자의 주변 인물 중 연구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연구 참여를 의뢰하는 형식의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대학의 실용음악계열 학과에서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실기 분야 수업을 지도하고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모두 경험한 자를 연구 대상의 조건으로 두었다. 최종적으로 모집된 연구 참여자는 총 9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Table 1> Participants' general information

No.	Gender	Age	Position	Final degree	Field of study
1	F	35	Adjunct professor	Candidate for a doctor's degree	Instrumental music (Jazz Piano)
2	F	36	Adjunct professor	Master's degree	Vocal music
3	F	35	Adjunct professor	Master's degree	Vocal music
4	F	45	Adjunct professor	Master's degree	Vocal music
5	M	45	Assistant professor	Doctor	Instrumental music (drum)
6	M	45	Affiliated professor	Candidate for a doctor's degree	Instrumental music (bass) Computer music
7	F	42	Assistant professor	Doctor	Instrumental music (drum)
8	M	41	Associate professor	Doctor	Vocal music
9	M	45	Affiliated professor	Candidate for a doctor's degree	Instrumental music (guitar)

9명의 연구 참여자는 11개의 대학교에서 외래교수, 겸임교수, 조교수, 부교수로 재직 및 출강하고 있었으며, 강의 경력은 최소 3년부터 20년까지로 분포하였다. 참여자 1은

서울시와 충청남도 금산 소재의 2개 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외래교수, 참여자 2는 전라북도 군산시, 천안, 서울시 소재의 3개 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외래교수, 연구 참여자 3, 7, 8은 경기 양주 소재의 Y 대학교에서 각각 외래교수, 조교수,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며, 연구자 4는 용인, 천안, 서울시의 소재 세 개 대학교의 외래교수, 참여자 5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D 대학교에서 조교수, 참여자 6는 천안과 서울 소재의 세 개 대학교에 출강 중인 겸임교수, 참여자 9는 용인 소재의 K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비대면 실기 수업을 실시한 과목은 1:1 형식의 보컬,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컴퓨터음악 ‘전공실기’ 수업과 ‘퍼포먼스워크숍’, ‘합주실기’, ‘리듬실기’, ‘즉흥연주기법’, ‘보컬워크숍’, ‘피아노 클래스’, ‘재즈피아노기법’, ‘프로툴녹음실습’, ‘뮤직랩프로젝트’ 등의 클래스 수업이었다. 수업방식은 실시간(virtual classroom)으로 진행한 교수자가 4명, 업로드(internet lectures) 형태로 실시한 교수자가 3명,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한 자가 2명이며, 비대면 수업을 본격적으로 경험한 것은 대부분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학년도 1학기부터이다. 다음은 연구 참여자의 교육 경력, 출강 학교 정보, 비대면 교육 수업 과목 및 방식을 정리한 표이다.

<Table 2> Participants' educational information

No.	Lecturing career	Workplace (Location)	Subjects	Education methods
1	10 years	• K Cyber Uni. (Seoul) • J University (Geumsan)	Piano class, Piano private lesson	Virtual classroom, Internet lectures
2	9 years	• H University (Gunsan) • B University (Cheonan) • S University (Seoul)	Vocal private lesson	Virtual Classroom
3	3 years	• Y University (Yangju)	Vocal private lesson	Virtual Classroom
4	15 years	• K University (Yongin) • B University (Cheonan) • J University (Seoul)	Improvisation techniques, Vocal private lesson	Virtual classroom, Internet lectures
5	20 years	• D University (Gwangju)	Rhythm research, Drum private lesson	Internet lectures
6	12 years	• N (Cheonan) • J University (Seoul) • K Cyber Uni. (Seoul) • S Cyber Uni. (Seoul)	Computer music, ProTools techniques, Music lab project	Internet lectures
7	12 years	• Y University (Yangju)	Vocal sorkshop, Vocal private lesson	Virtual classroom
8	17 years	• Y University (Yangju)	Performance workshop, Ensemble practice, Rhythm practice, Drum private lesson	Virtual classroom
9	12 years	• K University (Yongin)	Improvisation techniques, Guitar private lesson	Internet lectures

2. 자료 수집

심층 면담의 경우 연구 참여자가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Zoom Meeting) 방식 7명, 대면 1명, 전화 통화 1명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 하면서 간단히 안내했던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면담 시작 전에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다음 녹음과 녹화를 진행하였다. 위에 언급한 바대로 반구조화된 개방적 질문을 개인적 경험과 전문적 경험에 관해 구성하였고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Table 3> Interview guidelines

Interview categories	Interview subjects
Individual lived-experiences about online instruction in Jazz and Commercial Music Departments	• Motivation to start online class in Jazz and Commercial Music Departments • Meaningful experiences when lecturing online • Demanding experiences when lecturing online
Professional lived-experiences about teaching applied lessons and performance classes in Jazz and Commercial Music Departments	• Meaning of online instruction for applied lessons and performance classes in Jazz and Commercial Music Departments • Improvements of online instruction for applied lessons and performance classes in Jazz and Commercial Music Departments • Strengths of online instruction for applied lessons and performance classes in Jazz and Commercial Music Departments • Role of online instruction for applied lessons and performance in Jazz and Commercial Music Departments •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about online instruction for applied lessons and performance in Jazz and Commercial Music Departments

한 차례씩 진행된 개별 면담 시간은 최소 38분에서 최대 72분이 소요되었으며, 심층면접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코로나 19 대응 학교지침안내서와 연구 참여자 중 1명이 운영하는 유튜브(YouTube) 채널을 연구보충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얻었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결과 면에 일부 첨부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기록된 녹음 및 녹화 파일로부터 전사 작업을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표정, 비언어적 태도, 전반적인 면담 분위기 등은 면담 진행 시 작성한 현장 텍스트를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크레스웰(Creswell, 2010)이 가장 실천적이

고 유용한 접근법을 제공한다고 소개한 방법이자 무스타카스(Moustakas, 1994)에 의해 수정된 스티비크-콜라이찌-킨(Stevick-Colaizzi-Keen)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는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나열하고 목록을 만들어 개인이 어떻게 주제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술을 찾아 자료의 수평화(horizontalization)를 한다. 이때 모든 진술에는 동등한 가치를 두어 다루도록 하고 반복되는 언급은 제외시킨다. 2단계는 의미 있는 진술들을 큰 단위의 개념으로 나누어 그룹화한다. 3단계는 연구 참여자가 해당 현상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기술한다. 진술 그대로의 예시를 포함하며 이를 조직적 기술(textual description)이라 한다. 4단계는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기술하는 것으로 조사자는 상상적 변형(imaginative variation) 또는 구조적 기술(structural description)을 통해 문맥과 상황을 반영한다. 5단계는 조직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을 모두 혼합하여 현상에 대해 기술하는 것으로 경험의 본질을 긴 문단으로서 설명한다.

자료 분석에 따른 주제 및 범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Themes and meaning units according to analysis of data

Categories (Meaning units)	Themes	Significant statements	
Transition and adaptation to online instruction	Beginning stage of online instruction	COVID-19 / Maternity leave / Faculty guideline / Careers of online college / Inevitable circumstances / Trial and error / Consideration for curriculum planning	
	Effort to operate online instruction	Deliberation for class methods and growth as a lecturer	Advanced teaching quality / Time for understanding theory / Punctuality of class time / Conducting lecture syllabus / Planning systematic curriculum / Monitoring and verifying potential improvements
		Developing exclusive educational contents	Equipment(cameras and microphones) handling proficiency / Purchasing video editing software / Running a Youtube channel
	Merit and convenience of online instruction	Repeatable lectures / Rehearse and modify lecturing / Enhanced time management / Reduced travel cost / Less energy consuming / Comfort of personal space / virus-free	
Limitations of online instruction for performance	Difficulty of communication and rapport forming	Limited visual range / Face-mask / Lack of social interaction / Difficulty in monitoring class atmosphere / Lack of improvisation / mediocre atmosphere / Mediocre atmosphere	
	Technical issues	Delay issue	Limited observation of performance / Network delay
		Sound issue	Poor audio clarity / Requiring additional instructions / Inadequate instruments and devices / Inevitable change of curriculum

<Table 4> Continued

Categories (Meaning units)	Themes	Significant statements	
	Class participation and class satisfaction issues	Passive attitude of students	Inadequate learning conditions / Turned-off cameras / Unwilling to engage / Difficulty in motivating / Made-up excuses / Dissatisfied with curriculum /
		Varied class satisfaction	Repeated learning / Complacency / Deferred admission / Reduced rate of application / Waiting for face-to-face education
Prospect for the future of Jazz and Commercial Music Departments	The effectiveness of face-to-face education	personalized and flexible curriculums / potentials of physical interactions / immediate feedback to practical lessons / Inadequate effectiveness of non-face-to-face education	
	The needs of institutional support	Institutional media production and network system / audio equipment / Improved class preparation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 Compromising the level of instructor's role / Sharing teaching methods / Additional training for using audio and MIDI equipments / Copyright protection	
	Transition of thinking process	Strengthening the accessibility of collegiate education / Encouraging growth of music population / Attracting international students / Collaborating theory classes/ Use of various educational contents / Creating and operating classes suitable to online environment / Preparation to inevitable circumstance	

4.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성

린컨과 구바(Y. Lincoln & E. Guba)의 신뢰성 준거는 질적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 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연구 활동의 예를 처음으로 이론화했다. 네 가지로 제시된 이 평가기준은 먼저 질적 연구자가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단선적이거나 획일적인 하나의 관점만을 제공하기 보다는 다중의 실재(multiple realities)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체나 표현 기법이 완성도를 기해야 한다는 점, 연구 내용이 지적 자극과 신선한 충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행위준거, 마지막으로 독자가 질적 작품을 자신의 현장과 관련시켜 볼 때 적용하고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질적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적용되고 있다(Kim, 201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연구자는 삼각측정을 위해 질문지와 면담 자료, ‘비대면 교육’이라는 현상에 대한 문서 자료 및 문헌 연구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심층적 기술’로서 ‘비대면 교육’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서술과 더불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상황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록 하였다.

셋째, 심층 면담 진행 당시에 작성한 현장 일지와 해당 현상에 관련된 신문 보도 자료, 연구 참여자가 제공하는 참조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보강하였다.

넷째, 질적 연구의 경험이 수차례 있는 동료 연구자에게 연구 과정과 전반적인 연구 내용을 검토하게 하여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자료를 기술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자가 도출한 임의적 분석 및 결론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IV. 연구결과

1. 실용음악학과 비대면 수업의 시작과 적응

1) 비대면 수업의 시작

사이버대학교 출강 경력이 있던 일부 참여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시대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부터 교육부 및 “학교의 지침”에 의해 “불가피 하계”, “강요에 의해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20학년도 J 대학교의 수업운영 지침에서 1-2주차는 비대면 수업이 필수적이며, 3주차부터는 일부 실기 수업의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공주임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였다.

처음에는 A사이버대학교에 출강하게 되면서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반 대학교에서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6)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비대면과 대면 수업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초기에는 학교 지침 상 학기 첫 주부터 3-4주간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해서 ‘전공실기’는 그 이후에 대면으로 했고, 클래스의 경우 제가 출산이 겹치는 바람에 학기 내내 비대면으로 진행했어요.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 학교에서 학생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출석을 강요하기 보다는 제가 직접 대면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을 해서 해당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연구 참여자 7)

실용음악학과에서는 전공실기 수업의 경우, 수업의 질과 학생 만족도 면에서 우려되는 바 학교 측에서 개강 후 몇 주간만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는 상황이 완화되어서 대부분 2022학년도 2학기부터는 정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팬데믹 이후로는 특수한 상황이나 요청 학생에 한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코로나 19로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 실시에 대한 지시사항이 내려왔어요. 실기 위주의 과목은 대면 수업을 권장했고, 이론 수업은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진행했어요. 지난 학기 까지 그랬고, 지금은 수시나 입시 기간과 겹치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해요.
(연구 참여자 9)

2) 비대면 수업 운영을 위한 노력

(1) 수업에 대한 고민과 교수자로서의 성장

사이버대학교의 수업 경험이 있는 참여자를 포함해서 일반 대학교에서 ‘음악’이라는 과목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함’에 이어 ‘고민’과 ‘적응’의 시간을 겪는 연구 참여자가 대부분이었고, 이 과정에서 강의태도 개선, 수업시간 준수, 커리큘럼 재구성, 새로운 콘텐츠의 도입 등을 시도하며 교수자로서의 “반성”과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진도에 대해서 적정 수준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 고민 했어요. 시간에 딱 맞춰서 진행해야 하는데 어떤 차시는 너무 넘치고 어떤 차시는 너무 모자라서 강의 계획 짤 때가 힘들었고, 학생의 상황이나 변수까지 생각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 해야 했어요.
(연구 참여자 6)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기존 강의의 질을 유지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매 학기 해오던 수업을 반복하는 느낌이 아니고, 같은 과목이어도 새롭게 준비하는 느낌이 들었고 스스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1)

녹화를 하지 않아도 수업을 하면서 제 모습이 보이니까 스스로 감시자가 된 것 같았고, 제 강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생각보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르더군요. 또 영상으로 보니 기운이 센 느낌도 들고, 이제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너무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아이들이 편하게 수업을 받을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개선의 여지를 스스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4와 참여자 9에 의하면 통상 국내 실용음악학과 ‘전공실기’ 수업은 학생들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맞추어서 진행되고 이론 설명을 축소하되 실습 위주로 진행하게 된다. 이들은 오히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업로드형의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면서 이 부분이 보완 가능함을 느꼈다. 특히, 학습자의 반응이나 실습을 확인하는 시간 대신에 교수자가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론 및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채우면서 체계적인 강의를 진행하게 됨을 느꼈고, 일관된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한편으로는 강의 준비가 잘 되어야 하고, 강의 계획서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전공실기’의 수업은 탄력적인 수업이라 학생 상태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원 웨이(One-Way) 온라인 수업의 경우 계획한 대로 진행하면서 디테일하게 강의 내용을 채웠어요. 대면으로 수업할 때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떤 때는 연주를 더 많이 보여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하면서는 연주 시연의 수정을 통해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9)

같은 내용이라도 대면은 1시간이 소요된다면, 비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순서배열이나 내용에 있어 쓸모없는 부분을 도려내니까 30-40분 안에 콘텐츠가 구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진도도 빨라지고 수업의 퀄리티가 더 올라갔어요. ‘전공실기’ 수업 때 학생들이 이론에 대해 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이론 수업을 진행했고 호흡, 발성, 리듬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론을 체계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4)

(2) 강의콘텐츠 개발에 도전

무엇보다도 사운드 구현이나 연주 모습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촬영기와 음향기기, 편집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를 직접 구비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콘텐츠 제작 방식을 강구하게 되었다.

피아노 건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아노 건반을 양손으로 볼 수 있도록 촬영하는 거치대를 구비했고, 학생과 동시에 악보 필사가 가능한 아이패드(iPad),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카메라 등의 장비 사용이 능숙해졌어요.

(연구 참여자 1)

저는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콘텐츠 제작을 위해 편집 능력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마이크를 바꾼다거나 수업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 보기도 하고 피아노

도 새로 설치하는 등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콘텐서 마이크로 음원을 녹음해서 ‘루마퓨전’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영상을 편집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Vocal Exercises 연습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YouTube)에 공유했어요.

(연구 참여자 4)

Breathing Exercise
Make "Ss" Sound

Exercise 1
COUNT! Ready Inhale Hold Exhale(Ss) 4bars : 16sec X4

Exercise 2
COUNT! Ready Inhale Hold Exhale(Ss) 6bars : 24sec X4

Exercise 3
COUNT! Ready Inhale Hold Exhale(Ss) 8bars : 32sec X4

Source from: <https://youtu.be/mutaRoOpffA>

[Figure 1] ‘Vocal Exercise’ content on participant 2’s YouTube channel

위 그림은 연구 참여자 4가 코로나 대응 기간 동안에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유했던 실기 교육 영상 콘텐츠이다. 악보의 흐름에 맞추어 교수자가 직접 부른 가이드가 재생되며,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시청을 통해 연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었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 4와 참여자 9는 대면 수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했다면 시도하지 않았을 강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학생들의 새로운 니즈를 파악하고, 비대면 수업에서만 가능한 수업 방식과 커리큘럼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학생별로 어떤 학생은 솔리스트, 어떤 학생은 재즈 뮤지션, 유튜브 운영, 세션, 레코딩 세션 등 학생들 마다의 지향점이 다른데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서 강의 콘텐츠로 만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요. 하루는 어쿠스틱, 하루는 일렉트릭, 오버 더 테크닉, 재즈 인프라 등 학생 개개인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수업을 구성 했어요.

(연구 참여자 9)

3) 비대면 수업의 이점과 용이함 발견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비대면 수업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수업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다는 점과 보다 나은 비대면 학습을 위해 학생들도 MIDI를 경험했다는 점을 긍정적인 면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콘텐츠 제작에 있어 강의 시연을 수정하면서 완성도 높은 강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과 자신만의 공간에서 오는 편안함으로 인해 좋은 유대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밝혔다. 교수자 개인적인 면에서는 수업 준비 시간 및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수업 시간 변경에 있어 유리한 점, 강의를 위한 에너지 소모가 적은 점을 용이함으로 꼽기도 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 연습해야 할 부분을 녹화해서 보내주거나 직접 줌 화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비대면 방식으로 하면서 좋았던 점은 학생들도 장비 사용에 있어서 능숙하게 된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자신의 음악을 지향해야하고,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DAW 한 가지 이상은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오디오 장비를 구비하려고 하고, MIDI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1)

통근 시간이 줄어들니까 레슨 스케줄을 잡기가 편해요. 그리고 내 공간에서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학생도 심적으로 편한 게 보이고 교수님을 대할 때 스스럼없이 대하니까 학생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전공실기’ 수업의 경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때 진도가 빨리 나가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연구 참여자 2)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비대면 교육을 잘 활용을 한 편이라서 그간 수혜자였어요. 제 출산 시기에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 되어서 굉장히 편리했어요.

(연구 참여자 7)

한편, 연구 참여자 7은 지속되는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 대면으로는 수업을 강행할 수 없지만, 비대면 방식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함 없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언급했다.

학생이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 학교에 출석은 못하지만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비대면으로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만나지 않고, 자기 장소에서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전염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불안함 없이 수업을 할 수 있죠.

(연구 참여자 7)

2. 실용음악학과 비대면 실기 교육 운영의 한계

1) 소통과 라포 형성의 어려움

음악 실기 수업의 경우 대면으로 실시한다면 바로 앞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교수자가 보여주거나 설명을 하면 학생이 이를 실습하는 형식인데,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는 현장감이 부족하여 학생이 실습하기에 앞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 전달”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피아노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했을 때 바로 옆에서 듣고 보고 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어요. 학생이 받아들이기에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연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대면에 대비해서 비대면 방식으로는 80프로 정도의 챗터만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1)

‘전공실기’ 수업의 경우 원래는 앞에서 보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방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음에 따른 서로의 소통 불균형이 있었어요. 교수랑은 된다 해도 학생끼리 서로 전공하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돼요.

(연구 참여자 8)

또한, 물리적인 거리감이 생겨나면서 “정서적 교감”과 “감정”적인 피드백을 얻는 데 제한적임을 밝혔다. 실시간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녹화를 실시하거나 누군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교수와 학생 모두 사적인 이야기를 스스로 절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대감 형성이 어렵다고 하였다. 학생들은 기계적으로 수업에 임하게 되고, 연구 참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교수자와 대면했을 때는 드러나는 비언어적 표현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

1:1 수업이다 보니까 학생과 교수 간의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데, 그게 어려워요. 기존에 알던 학생은 비대면 방식으로도 근황 얘기나 고민 얘기도 많이 했지만, 처음 배정되는 학생이랑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대면수업을 했을 때는 공강(空講) 시간에 커피를 같이 마신다던가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 공감대 형성을 한 다음 학생의 실력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잘 풀어갈 수 있거든요.

(연구 참여자 2)

학생의 피드백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대면으로 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업로드 형의 비대면 수업은 학생의 감정적인 피드백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걸 봤구나, 연습하고 있겠지’ 하는 정도지, ‘교수님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연구 참여자 5)

2) 기술적인 문제

(1) 시간차 문제

연구 참여자들은 시간예술의 속성을 가진 음악에 있어서 비대면 실시간 수업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기술적 문제를 큰 한계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공간에 있다면 동시에 악기 간에 또는 악기와 보컬 간에 앙상블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발신자가 연주나 가창을 할 때 수신자는 그 즉시 청음하지 못하고 시간 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주 수업은 불가능하고, 1:1 ‘전공실기’ 수업의 경우에도 부차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가 된다거나 특정 커리큘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일단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시간 차 문제가 있어서 발성 같은 거를 하면 좋겠는데 제한적이어서 시도를 몇 번 하다가 포기한 적도 있고요. 노래를 하면서도 음정이 잘 안 맞거나 디테일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에 내가 피아노를 치면 또 시간 차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학생한테 치면서 해보라고 하니까 답답했어요. 나중에는 그냥 특정 스케일 정도만 불러보게 하거나 방법을 알려주고 혼자 연습하도록 했어요.

(연구 참여자 7)

합주를 하면서 수업하는 게 레이턴시 때문에 불가능했어요. 특정 곡을 연주해 보기를 위해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시차적인 문제가 생기고 잘 구현이 되지를 앓았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좋은 음향적 환경과 기타 앰프 등의 셋 업을 다 해서 수강하지 않기 때문에 테이크 턴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좋은 반주기기들이 많고 그거를 활용하더라도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똑같은 타이밍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연구 참여자 9)

(2) 사운드 구현의 문제

또한 현장에서 듣는 것만큼의 사운드 구현이 되지 않아 연구 참여자 8은 “열악”하다고 표현하였다.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도 음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가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생이 연주하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었고, 고음이나 볼륨

이 큰 경우 실시간 미팅 플랫폼을 통한 소리 전달이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과 상세한 지도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학생의 실습 모습을 촬영해 영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시스템의 제약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수업하다가도 저는 오디오 카드, 피아노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시연을 보여줄 수 있지만, 학생들이 제대로 연주하는 것을 보려면 학생의 손을 봐야하는데 시야도 제한적이고, 음향 장비가 없어서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대면 수업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수업 효과가 떨어졌어요.

(연구 참여자 1)

노래를 최대한 잘 들으려고 하지만 어떤 아이들 경우에 소리를 크게 내면 소리가 찢어지게 들렸어요. 이러면 잘 안 들리는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던지 이용 기기와 멀리 떨어져서 불러보라고 시켰어요. 아니면 최대한 비대면 환경에서 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수업하고 나머지는 만날 수 있을 때 하자고 했어요.

(연구 참여자 7)

음향적인 부분이 힘들었어요. 노래를 해야 하는데 MR을 들고 노래를 하면 핸드폰이 어떤 거는 잡음으로 인식하니까 둘 다 들어야 하는데 목소리가 끊긴다던가 밸런스가 안 맞던가 하는 부분 때문에 1:1 수업 상황에서 피드백을 해주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4)

3) 수업 참여도 및 만족도의 문제

(1) 소극적인 학생 참여에 따른 불편함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한다고 느꼈다. 특히, 실시간 수업의 경우 카메라를 아예 꺼놓는다거나 수강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을 발견하면서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답과 질문의 수가 현저히 감소함을 경험하면서 비대면 수업은 학생들의 ‘소극적인’ 참여의 원인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카메라를 꺼놓고 싶어 한다거나 본인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학생이 뭐하는지를 모르니까 대면 수업보다 수동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물리적인 포지션이 사라지니까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 대답하기를 바라고 질문도 줄어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4)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 수업에 임한다거나 그런 경우 수업을 귀찮거나 지루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이 받아들이기에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 참여자 1)

업로드 형태의 비대면 수업을 실시한 연구 참여자 5와 참여자 8은 시청만으로 출석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에 문제 인식을 하였고, 비대면 수업 환경이 주는 소통의 제한성으로 해이해진 학생들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비대면 수업의 학습 효과에 의구심을 가졌다.

개판이에요. 학생들이 그냥 시청만 하고 이론이든 실기든 수업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해요. 특히 줌으로 여러 명 수업할 때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해요. 딴 짓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구 참여자 8)

요즘 시대가 그럴 수도 있는데 영상을 시청하는 데서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좋지 않았어요. 시청만 해도 출석은 인정이 되니까. 그리고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이 방식을 쉽게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는 반면, 피드백 해주려고 자기 연주를 보이게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고 촬영하는 친구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치킨 배달 알바를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학생들이 겉으로는 좋고 편하다고 하는데 학습에 도움이 되느냐를 몰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5)

(2) 다양한 수업만족도 발견

연구 참여자 7과 연구 참여자 9는 비대면 실기 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비대면 수업을 싫다고 한 학생은 없었어요. 학생들이 의견을 잘 내놓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익숙해지면 그대로 쫓아가는 친구들이 많아서..

(연구 참여자 7)

학생 피드백에서 반복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고, ppt 화면을 통해 직접적으로 예시를 들어주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웠다고 했어요. 특히, 이동시간에 수업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9)

연구 참여자 2는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 면에서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처음에는 불만족을 느꼈던 학생들이 그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안일한 태도로 변화한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처음 비대면 시작했을 때는 빨리 만나서 수업하고 싶어서 진행 자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불편함을 토로하는 학생이 많았고, 교수들도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불편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게 방학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애들도 있고, 나중에는 이 시스템이 편해지면서 안주해진 상태가 되지 않았나..“아 대면 좋은데 싫어요”라고 두 가지 감정을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2)

그러나 학습에 열의가 있는 학생들은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수업 내용과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없는 형태를 두고 “FM적인 느낌”이라는 표현과 함께 만족스럽지 않음을 나타냈고, 연구 참여자 3은 학생이 스스로 실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음을 파악했다. 나아가 대면 실기 수업이 시행되지 않자 이로 인해 학과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 참여자 8은 밝혔다.

제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은 비대면 수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 직접 만나서 수업하고 싶어 했어요. 줌으로 수업하게 되면 싱크가 맞지 않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싫어했고, 실습을 위한 장소를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면 집에서 수강해야 했는데, 큰 소리로 노래하지 못하니까 대면 수업이 더 낫다고 했어요.

(연구 참여자 3)

4천 명 이상 규모의 대학교에서는 비대면 수업이 권장이 아니고 강제로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신입생의 경우에 입학 합격 통지를 받고도 등록을 연기하기도 하고, 지원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어차피 실기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 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이 끝나고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이 많았어요.

(연구 참여자 8)

3. 실용음악학과 수업 운영의 미래 전망

1) 대면 수업의 효과 인식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수업의 장점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실기과목에서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비대면 수업에 있어 불편함 보다 편리함과 용이함

을 더 많이 언급하였던 연구 참여자 7과 참여자 9도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앞으로 실기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과 비대면 실기 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각기 내놓았다. 연구 참여자 8은 비대면 실기 수업에 대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학사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라 표현하였다. 또한 아래의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기술적, 환경적 면에서 상대적으로 대면 수업 효과가 우수함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겪기도 하였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봤기 때문에 대면 수업의 좋은 점을 느끼게 됐어요. 둘 다 해보니까 학생들도 장단점을 다 알면서 대면 수업의 소중함을 알게 됐죠. 반대로 비대면 수업은 편한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비대면 수업은 시도를 해봤다는 것이 실용음악학과에서 지니는 역할의 전부라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1)

대면 실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대면으로 수업하면 일단 소리 자체가 전달되는 질이 달라요. “저 여기 불러 볼게요” 했는데, 너무 볼륨이 크면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면으로 수업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기 레슨의 경우 대면 수업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대면 수업할 때는 누가 열심히 임하는지 몰랐는데, 대면에서는 수업 태도가 우수한 학생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걸 점수에 반영할 수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2)

비대면 수업을 해보니까 내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웬만하면 대면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이론 수업의 경우는 강의 실시할 때 학생 계정을 음소거 시키면 집중도가 상승해서 비대면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면 실기 분야도 비대면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3)

2) 기술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소통의 문제, 기술적 문제, 학습 분위기 조성의 문제 등 비대면 실기 교육을 경험하면서 앞서 보고되었던 여러 가지 한계점을 인식함에 따라 앞으로 비대면 수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느꼈다. 사운드 면에서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교수 및 학생 쌍방향의 음향 장비의 구축이 필요함을 느꼈고, 강의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조치와 콘텐츠 개발과 전송에 있어서의 학교 차원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수자만 좋은 시설이 아니라 학생도 비슷한 수준의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타악기의 경우 레코딩이 가능해야 하고, 디테일하게 모든 소리가 커버될 수 있도록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연구 참여자 5)

교육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해요. 비대면 수업의 경우 수업 영상 파일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입학 전의 학생들이 이를 접하게 된다면 대학교에 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 재산인데 저작권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8)

학과나 학교 차원에서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해요. 교수자들의 개인 역량에 둘 게 아니고 PPT 제작하는 부서나 영상 촬영하는 시스템이나 마이크와 악기 관련 기자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가 교수들에게 참여의식에 대해서 독려 문자를 보내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연구 참여자 9)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운영“시스템”의 미비함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연구 참여자 스스로가 비대면 수업 환경에 적응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연구 참여자 6과 참여자 9는 우수한 비대면 수업 사례 공유 등의 내용이 담긴 교수 학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3) 발상의 전환

비대면 수업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이점을 깨닫기도 했는데, 수업의 다양성 확보 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개념, 출석의 유연성 면에서 활용가능하다는 점으로 미래에 비대면 수업에 긍정적인 면모를 인지하였다.

해외의 사례는 많이 접해봤지만 그들은 이미 비대면 수업을 위한 환경이 갖춰져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도 그런 상태라면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대면·비대면 방식을 선택이나 병행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카메라의 사용자가 연주를 해서 트랙을 만들면 이어서 2번 카메라 사용자가 그 위에 연주를 한다든지 줌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도 좋고요.

(연구 참여자 1)

코로나가 심한 상황일 때나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원래는 결석처리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에게 줄 수 있게 되었어요. 대면 수업

을 못하는 경우의 차선택이 생긴 거죠.

(연구 참여자 3)

대학교육의 저변 확대라는 개념에서 가능성과 그 이점을 깨달은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는데, 참여자 4는 스스로 비대면 환경인 유튜브 채널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에 보람을 느꼈고, 참여자 9는 해외에 교육 콘텐츠 송출 및 유학생 유치 등의 기회로서 비대면 수업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요에 의해서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장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활성화 시키지 않고 있었는데, 불특정 다수를 향해 내 창구를 열어 놓은 계기가 되었거든요.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은 친구에게도 전부는 아니지만 연습 방법의 일부를 공개한다든지 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다수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고, 전공생 이외에 취미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소수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보다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인구를 늘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나이가 콘텐츠 위주의 수업을 운영한다면 대학생들에게도 저렴한 학비에 학교를 다니게 있게 할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4)

대면 수업의 차선택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잘 구축한다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교육원이나 학점은행제, 대학교에서의 특정 과목들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수월하게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형식은 해외에도 송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 미흡한 해외 거주 학생들에게는 자막 서비스와 함께 한국의 교육을 경험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나이가 학교의 홍보차원에서도, 유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연구 참여자 9)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 19 대응책으로 교수자들이 실용음악학과에서 비대면 실기 교육을 실시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풍부한 관점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3년부터 20년까지의 실용음악 관련학과의 강의 경력을 지닌 교수자 9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한 후, 린컨과 구바의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3개의 범주와 9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음악학과의 교수자들은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실기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초반의 과정 속에서 당황함을 겪었고, “고민”, “시행착오”, “반성”, “성장”의 경험을 마주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학교의 지침에 따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고 비대면 실기 교육의 전례가 없기에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다양한 시도 속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했던 것이다.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더 나은 사운드 구현을 위한 장비 마련, 비대면 환경에서의 적합한 커리큘럼으로의 수정, 강의 운영 개선,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 저마다의 노력을 통해 비대면 수업 운영 노하우를 쌓았고 스스로의 “성장”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한편 비대면 수업 콘텐츠는 반복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 제작 시 강의 시연의 수정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강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 사적인 공간에서의 편안함을 통해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강점’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이동시간 단축, 이로온 수업시간 변경, 에너지 소모 감소,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안전성 등에 ‘용이함’을 느꼈다.

둘째,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실기 교육의 불편함과 한계를 느끼게 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소통”이었다. 비대면으로는 “감정 전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주 테크닉을 이해하거나 학생의 학습태도 파악에도 많은 제한을 발견하였고 이로 인해 유대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꼈다. 특히 다자간 네트워크 속도 차이로 인해 동시에 청음이 되지 않으면서 ‘양상불’ 관련 수업은 대면수업에서 했던 합주 방식은 진행이 불가능함을 인식하였다. 다음으로는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의 사운드 문제이다. 오디오 장비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거나 교수자만 구비한 경우 질 좋은 사운드 구현이 어렵고, 고음이나 저음 전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커리큘럼 일정 부분을 대면 수업이 가능한 때를 위해 미루거나 포기해야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수업 참여도와 만족도 면에서도 문제를 발견하는데, 학생들이 카메라를 꺼놓거나 대답 및 질문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하고 수업 효과 면에서 의구심을 갖거나 만족도가 저하되어 입학연기나 휴학을 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반면 비대면 수업 특유의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안일한 태도로 출석한 채로 학습 자체에 관심이 저조한 학생들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되었다. 먼저 대면 수업에 대한 절실함을 드러냈다. 유대관계 형성, 학생별 수준과 상황에 따른 유연한 수업운영, 신체적 학습, 피드백에 대한 즉각적인 반영, 다자간의 원활한 소통, 생생한 사운드 청음이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됨으로써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반면, 비대면 실기 수업에 대해서는 “역할이 없다”, “의미 없다”, “강점이 없다”라고 표현하였다. 이어 지속적인 비대면 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을 보고하였고, 수업 영상 제작을 위한 장비 및 스튜디오나 ppt제작을 위한 교원, 안정적인 온라인 학습운영체제, 악기와 음향 장비, 교수와 학생의 퍼포먼스를 위한 수강 환경, 출석확인 시스템,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저작권법을 위한 정보 보안 체제 등 학교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비대면 음악 교육이 소수의 전문가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음악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대학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해외 유학생을 견인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때에 대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대면 수업을 인식하였고, ‘재즈음악사’, ‘음악교육론’, ‘화성학’ 등과 같은 이론 수업은 비대면 교육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서 실기 수업의 경우에도 이론 강의가 일정부분 필요한 경우에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서 운영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린컨과 구바의 평가기준에 따라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비대면 수업 운영의 긍정적인 면부터 부정적인 면까지 연구자 한 명만의 관점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연구 결과에 드러냈다. 이어 연구 참여자들 개개인이 스스로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소개하거나 해당 현상을 경험한 후의 연구 참여자 내면의 감정을 그들의 언어로 드러냄으로써 지적 자극과 연구 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마지막으로 미래 실용음악학과 수업 운영의 발전에 있어 적용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 참여자가 피아노, 드럼, 보컬, 기타, 컴퓨터 음악 전공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진으로만 구성되어 베이스 기타, 관악기 등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되지 못하였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시켜 참여자들의 폭넓고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언한다. 또한 교수자들만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경험에 대해 현상학적 연구를 시행하여 실용음악학과와의 비대면 수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Ahn, S. H. (2020). A study of limitation to college music education due to COVID-19 and a proposal for UNTACT learning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Journal of Culture Industry*, 20(3), 105-115.
- Creswell, J. W. (2010).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E: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London: Sage Publications.
- Hwang, E. J., Lee, S. J., & Na, J. J. (2022). Exploring applied music education types in Korean universities through management case analysis: Focusing on educational

- coping methods for COVID-19.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7(5), 127-151.
- Jang, H. W. (2015). A study on the process of cultural legitimacy of the Korean popular music: Focusing on the entry of the 'Practical Music' and settlement into the university system. *Korean Journal of Popular Music*, 15, 34-85.
- Jung, Y. R., Jang, E. J., Park, J. H., & Lee, Y. M. (2010). *An analysis on the current states and the development of quality assurance strategies in cyber university*. Daegu: Korea Education &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Kim, D. M. (2021). An applied music curriculum review: Focused on capstone design class. *Culture and Convergence*, 43(10), 939-951.
- Kim, H. Y., & Han, S. J. (2021). A study on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of the non-face-to-face music practical class. *Culture and Convergence*, 43(3), 647-671.
- Kim, Y. C. (2016).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Data analysis 1*. Paju: Academy Press.
- Ko, S. M. (2021). A review on non-contact vocal ensemble activity using BandLab.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4), 24-44.
- Kwon, H. (2021).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non-face-to-face online practical classes in music college according to COVID-19 crisis response.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6(1), 69-89.
- Lee, M. J., & Kwon, S. (2021). A study on the distance learning for string & wind majors in the college of music.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7, 1-20.
- Lee, Y. S., & Hong, S. K. (2020)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electronic music curriculum in Chinese universit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rricula of the department of applied music in Korea and the department of electronic music in China. *Culture and Convergence*, 42(12), 751-776.
- Li, N., & Han, K. H. (2020). The suggestions for improving applied music education in Kore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curriculum, educational facilities and faculty recruitment rate between music conservatories in China and applied music departm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9(2), 91-109.
- Moustaka,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London: SAGE.
- Min, K. H., & Lim, E. J. (2021).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online music class based on FGI basic research.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0(3), 35-55.
- Ryu, E. J. (2019). Applied music education in Korea cyber university: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collegiate online applied music education in the U.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39, 69-98.

Seo, J. H. (2021).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and curriculum management of colleges of applied music: With the focus on applied music departments based in Busa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22(3), 529-538.

Yun, S. Y. (2018). The study of online piano education - The online piano education of S cyber university.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34, 1-26.